



◀지옥중생의 고통을 제도하는 범종을 치는 스님의 힘찬 모습에서 무인년의 청정 법계가 열리는 듯하다.



▶'지심귀암'의 화청으로 엄숙히 봉행되고 있는 법주사 아침예불.

“일체중생 어서 깨어나 새아침 맞자”

도량석과 아침예불



◊지상의 일체중생제도를 위해 범고를 두드리고 있다.

무인년 새해의 첫날 새벽 3시, 법주사 대웅보전 앞 안개를 밟고 서 있는 스님의 손에는 커다란 목탁 하나가 들려 있다. 스님의 손이 움직이며 목탁소리가 울려 퍼진다. 목탁소리가 메아리쳐 온 산을 가득 채운다. 속리산 계곡은 한 칸의 법당이다.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스님의 청량한 범불소리가 없어지며 새해를 맞이하는 첫 도량석이 시작됐다. 법주사 뿐이겠는가. 이 시간 전국과 사찰에서는 무인년의 희망찬 새해를 저 동해바다에서 두둥실 띄워 올리는 목탁소리가 일제히 메아리치고 있을 것이다. 산이 깨고 강이 깨고 들이 깨어나는 소리, 마침내 온 중생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 던지는 계축의 소리가 도량석 목탁소리에 묻어 해조음처럼 법계를 채우고 있다.

사천왕석등(보물제15호)과 쌍사자 석등(국보제5호)을 지나 오백 아라한님이 계시는 팔상전(국보제55호)을 한바퀴 돌아 수미산처럼 우뚝 서 계시는 미륵부처님에게도 인사를 드리고 천왕문과 금강문을 돌아 다시 법당으로 향하는 스님의 발 걸음은 안개보다 가볍다. 어쩌면 스님은 지토록 큰 목탁소리를 내며 저토록 청량한 범불을 하며 법주사 도량을 걷는 것이 아닐 것이다. 경계가 파탄 내버린 땅, 인물이 엉클어진 땅, 정체가 뒷걸음질 치는 땅의 고난 속을 걷고 있을 것이다. 언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듯 고난의 땅에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을 한물안뜰 붓고 있을 것이다. 산사의 도량만 청결히 하는 것은 도량석이 아니다. 법계의 온 중생이 맑은 눈을 뜨고 새날을 맞길 기원하는 자비의 의식이 바로 도량석이다. 그래서 도량을 가득 채운 안개마저 숨을 멈추고 스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인가. 도량석은 하루를 여는 장엄한 의식의 제1막일 뿐이다. 어느새 불이켜진 법당에는 기러기처럼 줄을 갖춰(雁行) 들어 온 대중스님들이 정화한 새해의 첫 예불을 준비하고 있다.

법당에서 쇠징을 치는 소리가 천상의 주악처럼 울린다. 단아하게 앉은 스님이 쇠징을 치며 계승을 읊는다. 일체 중생이 무명을 벗어나 지혜의 숲길로 살아가는 가르침이 한 구절씩 법당안을 채우고 있다. 한구절이 끝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장엄스레 베껴 넣는다. 어느 성악가의 무대가 이처럼 엄숙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어둠 속에 대웅보전이 있고 대웅보전 속에 부처님이 계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수행승의 음성공양은 우주의 어둠도 한층 안개인양 흩어 버리는 것을.

쇠징과 음성으로만 이어지는 계승이 끝나자 종도루에서 ‘두두둥 두두둥’ 북소리가 울린다. 사물(四物)을 두드리 법계 중생을 이고득락(離苦得樂)케 하는 의식은 총총히 빛나는 별들이 있어 더욱 장엄하고 엄숙하다. 네 스님이 북과 종, 목어, 운판 차례로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는 듯하다. 허공계와 지옥계까지 퍼랑퍼랑 울리는 노래를 부르는 듯 하다.

무인년 여는 첫 새벽
 목탁소리 이어지는 도량석
 경제고난 이겨낼 힘
 모두에게 있음을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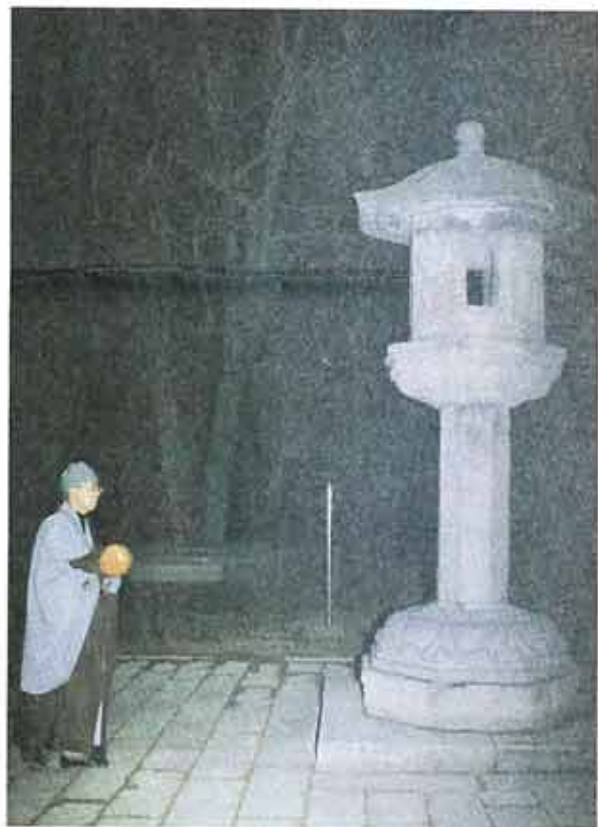
범종·북·목어·운판
 四物소리 가득한 도량
 아침예불 올리는 마음
 “일체중생 눈을 뜨자”

지상의 일체중생은 이 북소리를 듣고 눈을 뜨라. 지옥계의 일체중생은 이 종소리를 듣고 눈을 뜨라. 허공계의 일체중생은 이 운판소리를 듣고 눈을 뜨라. 수중계의 일체 중생은 이 목어소리를 듣고 눈을 뜨라. 눈을 뜨면 보일 것이다. 아침이 밝아오듯 환하게 열리는 청정법계가 보일 것이다. 새해에는 눈을 뜨자. 호랑이 같이 부릅뜬 눈으로 경계를 살리고 인권을 세우고 정법의 길을 열자. 새해에는 호랑이같이 눈을 뜨자.

북을 치는 스님은 북소리 속에, 범종을 치는 스님은 종소리 속에, 목어를 두드리는 스님은 목어 소리 속에, 운판을 치는 스님은 운판의 소리에 붙는다. 그렇게 스님은 없고 소리만 있는 종고루 위 하늘에서는 새벽별이 빛나고 있다. 중생계의 영인, 새해를 맞으며 발원하는 간절한 염원에 화답이라도 하는 듯. 법당에서 목탁소리에 맞춰 아침예불이 시작된다. “오분향례”로 시작되는 예불은 때때로 일사분란하게 20여 대종이 울리는 아침예불은 “지심귀암(至心歸命)”의 화청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재불보살님과 역대조사의 가르침을 따라 위엄을 정각을 얻으리라는 서언이다. 새해 첫 아침예불에는 재가불자들이 20여명이 참가했다. 법주사 주지 해광스님은 예불이 끝나고 그들을 위해 짧게 설법을 했다. “우리의 경제가 오늘날의 파국을 맞은 것은 소속지족의 도리를 무시하고 당장의 이익에만 급급해 하며 살아온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잘 간수하지 못한 업보인 겁니다. 새해에는 모든 중생이 화합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소속지족의 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도록 합시다.”

어느해 보다 어려웠던 정축년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과 다짐으로 맞이하는 무인년 새아침. 이 아름다운 아침은 온 우주가 법주(法住)의 도량되길 간절히 희구하는 법주사 도량석과 아침예불에서 밝혔다.

글=임연태 사진=고영태 기자



◊도량과 법계를 청정하게 하는 새벽 3시의 도량석.

도량석이란

새벽 3시 도량돌며 청정기원

새벽 3시에 도량석(道場石)을 봉행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다. 도량을 청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하루 일과중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도량석이다. 도량주변을 살살히 돌며 열불이나 계승을 외우는데 흔히 <천수경>을 외운다. 그것은 <천수경>에 도량을 청결히 해주는 ‘도량계(禪)’가 들어 있고 각종 진언들이 도량석의 본래 정신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천수경> 가운데 ‘신묘장구대다라니’ ‘사방한’ ‘도량한’ ‘참회계’만을 외우며 도량을 도는 경우도 있다.

이중 ‘도량한’은 법계에서는 도량계라 하는 것으로 ‘도량청정주하여 삼보천룡강처지 아금지송묘진언 원사 지비밀가호’의 네구절이다. 여기에는 ‘도량이 청정해 티끌하나 없으니 삼보와 천룡은 이 땅에 내려 오소서, 내가 이제 묘한 진언 외우니 원컨대 지비가호를 내리소서’란 뜻이 담겨있어 새벽 도량석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준다. 사찰에 따라서는 경을 외우지 않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등을 정근하거나 <금강경>의 계승이나 선 사들의 계승을 외우며 도량석을 행하는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천수경을 한 번 외우는 경우가 많다. 아침예불은 글자 그대로 아침에 하는 예불의식이다. 사찰에서는 아침과 낮(사시 즉 오전10시) 그리고 저녁에 각각 예불을 올린다. 아침예불은 우선 각단에 차나 청정수를 올리는 다계례부터 시작된다. 이어 사물과 종승이 진행되는데 좋은 아침에 28번 저녁에는 33번을 친다. 예불은 삼보에 귀의하고 문수 보현 지장보살과 역대 선지식께 귀의하며 그 덕을 찬탄하고 원을 세워 온 중생에게 회향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발원문과 중단을 함께 반야심경을 염송하는 것으로 아침예불이 끝난다.